

# 보건사회연구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김안나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근로자 생애주기적 접근
- 강지원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 배하옥 | 김유경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 장윤정 일본 노인입소시설의 유니트케어(unit care) 실시에 따른  
케어워커(careworker)의 소진과 케어업무 및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 이필도 | 김미혜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 구인회 | 손병돈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엄기욱 | 정재훈 |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이수연
- 박능후 | 배미원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최성은 과세표준소득의 세율탄력성과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 정인석 | 이상직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 김기량 | 김미경 | 한국 식품 미보장 현황 및 특성  
신영전
- 서 평 최은진 : 확대되는 의료서비스시장과 소비자의 선택

##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박능후  
(경기대학교)

배미원  
(경기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횟수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횟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8차년(2005)부터 10차년(2007)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근로빈곤층」은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하며, 「노동이동」은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으로 정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빈곤여부, 젠더, 학력, 혼인상태,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이다.

분석결과를 단일 변수별로 구분해보면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빈곤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종사상지위에 따라, 직업훈련경험 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 간의 노동이동 차이는 동질연관성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아송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성별,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지위, 직업훈련 경험 유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젠더와 생애주기는 모형적합도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용 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목되었다.

**주요용어:** 노동이동, 근로빈곤층, 젠더, 생애주기, 빈곤여부

\* 교신저자: 박능후, 경기대학교(npark@kyonggi.ac.kr)

■ 투고일: 2009. 10. 15

■ 수정일: 2009. 10. 30

■ 게재확정일: 2009. 11. 13

## I. 서론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이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 노동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일어난다면 그 기능은 긍정적이다. 자발적 노동이동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인데, 보다 높은 임금이 주어지는 직장으로의 이동,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신규인력의 진입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게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면서 비자발적인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강제퇴직을 당한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낮은 임금의 사업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노동계층은 임금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강요당하며 일자리는 있으나 빈곤을 면치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이란 구빈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물질적 박탈상태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빈곤의 대표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은 일하면서 빈곤상태에 있는 개인을 지칭하면서도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빈곤선에 의해 가구단위의 적용을 받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계층이다.

최근 우리나라 근로빈곤층 추이(김안나, 2007)를 보면 중위소득 60% 기준 근로빈곤율은 1995~1998년간 14.6%에서 17.19%로 증가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소 감소하다가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자영업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빈곤율이 21.25%에 이르러 근로소득이 있는 4가구 중 1가구는 근로빈곤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근로빈곤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가 더 이상 빈곤탈출의 돌파구가 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연분이 10년에 이르고 있지만 근로빈곤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은 이들의 노동상태와 노동이동 특성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sup>1)</sup> 근로빈곤층의 노동실태

---

1) 근로빈곤층의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한 연구(박능후, 2003; 김영란, 2005; 홍경준, 2005; 금재호, 2006; 노대명, 2006; 김안나, 2007)와 근로빈곤층과 빈곤에 관한 연구(구인회, 2002; 금재호, 2004; 김미곤·김태완, 2004; 노대명·최승아, 2004; 이상은, 2004; 윤성호, 2005; 이현주, 2005; 조용수·김기승, 2007; 반정호·김경휘, 2008) 등이 있다.

와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근로빈곤층의 열악한 생활상태와 근로조건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기존 연구들(홍경준·최옥금, 2004; 이병희, 2005; 김종숙 외, 2006; 이현주 외, 2006; 박진희, 2007; 지은정, 2007; 최옥금, 2008)은 근로빈곤층이 일자리를 획득하고 잃는 과정이 빠르고 반복적이며 취업과 실업 비경황 상태를 순환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요인이 이러한 특성의 노동이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설명이 주어지고 있을 뿐 명확한 설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가을(2007)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이동을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근로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평생 동안 저임금, 미숙련, 고용 불안정성에 놓여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에 집중된 노동경험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겪은 노동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애주기를 통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장이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구별되어야 근로빈곤층 노동경험의 특성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다수의 다른 연구들(박수미, 2003; 박경숙 외, 2005; 장원봉·정수남, 2005; 최옥금, 2008)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생애주기와 함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한계도 보이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이 전 생애를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동보다는 고용주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의한 비자발적 이동이 많으며, 설령 자발적 이동이라 하더라도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로자의 자구적 대응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연구는 저임금·고용의 질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요인 외에 가구특성, 젠더, 학력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젠더와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의 생애주기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어떻게 다른 노동이동 행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근로빈곤층의 개념

IMF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근로와 연계한 생산적 복지라는 제3의 국정이념을 제시하며 생활보호에서 기초보장이라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탄생시켰다. 근로는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로 강조되면서 그 후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거치며 근로와 연계한 복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중산층 가구 비율이 1996년 68.6%에서 2006년 54.6%로 감소하고 빈곤층은 11.2%에서 2006년 20.1%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의 양적·질적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노길상, 2008). 또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달리 고용상태에 있으면서 빈곤한 근로빈곤집단이 등장하면서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근로빈곤의 개념은 가구 단위의 빈곤이라는 개념과 개인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중첩된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기준의 적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근로빈곤층의 의미 혹은 개념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 목적이나 정책 대상에 맞게 빈곤선 100%에서 200%까지를 다양하게 근로빈곤층의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한 생활보호수준이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국가 간에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빈곤원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령을 제외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Marlene Kim, 1998; David Shipler, 2004).

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은 거시적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및 그에 따른 손실비용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지향적 개혁,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적 원인으로는 노동공급 경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채용되고 최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계층으로 인식되듯이 취약한 개인의 인적자본을 들 수 있다(노대명 외, 2007).

### 2. 노동이동 원인에 관한 전통적 이론모형

노동이동에 관해 신고전학파는 임금격차설과 취업기회설로 설명하고 있다(김유배, 2006).

임금격차설은 자본이 이윤을 격차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임금노동은 임금을 격차를 중심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노동자는 저임금의 산업 및 지역에서 고임금의 산업 및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력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이동을 정태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취업기회설은 노동이동은 취업기회의 증감에 의해 규정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노동수요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태적 파악을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노동이동에 있어 임금격차와 취업기회는 상호 배타적인 이론이 아니라 노동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각각 노동이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동의 인적자본론적 접근은 신고전학파의 노동이 동질적이며 시장 간의 이동에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이다. 인적자본론은 노동이동을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행위로 파악하여 비용·편익 분석으로 설명한다(김유배, 2006; 한홍순·김중렬, 2007).

그러나 이러한 노동이동과 관련한 기존 이론들은 노동이동을 수요와 공급의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노동이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전 생애과정을 통한 노동이동과 특히 비자발적 노동이동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노동이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론모형으로서 이행노동시장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 3. 노동이동에 관한 새로운 이론 모형-이행노동시장이론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s, 이하 TLM으로 기술)이론은 1990년대 중반 독일의 슈미트(Schmid, G.)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취업과 실업으로 이분되는 전통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인적 욕구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행노동시장이란 정규 임금노동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회적, 개인적 활동 간에 이행이 이뤄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슈미트에 의하면, 노동이동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동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정원호, 2004; 김동헌, 2009; Schmid, 1998). 첫째, 교육·훈련과 고용간의 이행, 둘째, 단시간 노동과 전일제 고용간 또는 피고용 노동과 자영업간의 이행, 셋째, 실업과 고용간의 이행, 넷째, 사적인 가사활동과 취업간의 이행, 다섯째, 취업과 은퇴간의 이행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행노동시장 개념도



자료: Schmid(1998).

TLM에서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장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모든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직된 개념(20~65세 사이의 연령범위와 주당 36~40시간 근로)이 아닌 ‘유동적인 균형(fluid equilibrium)’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고용형태는 가족의 욕구, 경제나 기술적인 변화 또는 개인 선호에 따라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inactivity) 등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Gazier and Schmid, 2002). 즉 완전고용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3의 방법이며,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모델 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한 양성평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개인의 사회적 생애경험을 반영한 주당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Erik de Gier & Axel van der Berg, 2005). 따라서 실업<sup>2)</sup>과 비경제활동을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인식하면서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생애주기(life course)에 따라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을 경험하게 되므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서의 목표는 빈곤이나 실업 등으로 인한 배제의 이행(exclusionary transitions)을 예방하고 고용가능성과 취업과 실업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한 ‘노동이행을 통한 보상(making transition pay)’<sup>3)</sup>으로 요약할 수 있

2) TLM에서는 실업을 새로운 직장이나 업종으로 이전, 재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이나 향상, 또는 육아나 출산 등 가구에서 나타나는 필요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Schmid, 1998).

3) 이행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이 육아 등을 포함한 가족과 관련된 일들, 교육훈련, 실업뿐만 아니라 장애 및 퇴직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노동시장 내의 전환은 위험한 선택이 아닌 이득을 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슈미트는 이를 ‘노동이행을 통한 보상(make transition pay)’이라 정의했는데, 이는 특히 OECD의 노동시장 대책인 ‘근로연계복지(make work pay)’와 비교되는 것으로 일자리 획득이 아닌 다양한 노동시장 내의 이동 자체에 유인책이 생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chmid, 2002).



다(Klaus Schomann & Liuben Siarov, 2008). 따라서 TLM은 이러한 유연안정성을 생애주기에 걸친 동적인 이행으로 인식하며, 이를 개인, 가족, 기업과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관리(Social Risk Management)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TLM개념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노동이동에 관해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주변 혹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동시장·사회정책을 구상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라는 점이다. 셋째, 노동을 어느 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활동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이행활동으로 보며, 이러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기제가 필요함을 인지시킨다. 넷째, 완전고용을 이해함에 있어 취업과 실업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실업과 비경황 또한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동유연안정성과 같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4. 노동이동에 관한 기존문헌 분석

전통적으로 노동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권이자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로 강조되어 왔다. 노동 이동 또한 역사적으로 경제발전의 촉진제로서, 개인에게는 보다 나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노동과 노동이동의 긍정적인 인식은 최근 들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과 탈빈곤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지고, 노동이동이 계층에 따라서는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관련된 연구로서 김혜원·최민식(2008)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특징이 고용안정성이 낮아지고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이동을 하게 되어 노동이동과 임금은 반비례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직장을 유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임금상승은 6%였으며, 실직 기간 없이 노동이동을 한 경우는 7%의 임금상승을 보인 반면 실직기간을 경유하는 노동이동의 경우에는 -10%의 임금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리해고 명퇴 등의 정당한 사유로 기업이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선별적해고의 경우에는 38%의 임금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근로빈곤 층에게는 노동이동 자체가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금재호·조준모(2002) 역시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비자발적 노동이동의 경우에는 경기회복과 정부의 적극적 실업대책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실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하였다더라도 소득수준의 회복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속기간과 실직



기간, 고용형태가 전·현직의 임금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많고, 고학력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직기간이 길수록, 직종전환의 경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직장상실비용<sup>4)</sup>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기간에 따른 재취업 임금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적 구직활동 가능성보다는 인적자본상각(人的資本償却) 혹은 시장차별효과가 지배할 가능성이 커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주목하여 할 변수로서 기존 연구들은 젠더,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원 및 가족생활주기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송호근, 2002; 김종숙·박수미, 2003; 박수미, 2003; 정희정, 2005; 최옥금, 2005; 노대명, 2006; 이현주 외, 2006; 김가을, 2007; 노대명, 2007; 박진희, 2007), 종사상 지위 및 경황상태 등의 고용특성(정진호 외, 2005; 김종숙 외, 2006; 이병희, 2008), 부양책임(이기효, 1994; 박동건, 2001; 김종인·박민해, 2002; 박석돈, 2007; Price & Mueller, 1981; Macy & Mirvis, 1983; Cotton & Tuttle, 1986)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변수 중에서 본 연구는 젠더와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젠더와 생애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는 사전적 의미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을 일컫는다. sex가 자연적·생물학적 차이의 차별에 대한 정당성의 기제라면 젠더는 여성 배제의 극복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각각 내적 동일성과 외적 상이성을 부여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특정하게 조직하려는 사회적 개념이다(배은경, 2004). 그러므로 성별화 된다는 것(gendered)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 차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젠더 과정, 젠더 위계화, 젠더 구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노동시장은 성별화 된 대표적 제도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분리와 노동영역 분리를 동일시하며 남성적 일과 여성적 일을 구분하고 임금 격차를 정당해 왔다. 가족 임금제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자로서의 성별 이데올로기를 통해 성별 분업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가사 분업을 강화시키고 여성은 산업예비군으로서 저임금 노동자로 순환하게 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력의 유연화를 가져와 여성의 빈번한 노동이동을 초래하였다(김현미·손승영, 2003; 성문주, 2009). 또한 여성은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며 실업과 경계실업, 순수비경황 상태가 구분되지 않고 비경황 인구 중 여성 비중이 2배라는 점에서 여성빈곤집단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박수미, 2003; 김종숙, 2006).

---

4) 직장상실비용은 임금감소 이외에도 직장상실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비효용(disutility)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계측이 용이한 임금변화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는 추세이다.

송호근(2002)은 1998년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70%를 차지함을 제시하면서 그 원인을 노동시장 내 성차별과 분절노동시장이 여성의 임금 하락과 경제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지적하여 근로빈곤층의 여성화 현상을 지적하였다. 빈곤확률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해한 연구에서도 빈곤확률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녀 간 노동 시장의 격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여지영, 2003)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차원의 분석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생애주기(life course)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으로 개인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시간적 연속을 의미한다(유영주 외, 2005). 근로빈곤층은 가구주이든 가구원이든 노동활동을 통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다른 가구원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동활동은 가구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평생 동안 저임금, 미숙련, 고용불안정성에 놓여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에 집중된 노동경험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겪은 노동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빈곤율은 성인단독가구,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취업자 유무, 전일제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분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김태완, 2000; 이현주 외, 2006; 노대명, 2007; David Gleicher · Lonniek Stevans, 2005)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은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가구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보듯이 빈곤과 노동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특히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가구의 근로소득과 같은 가구요인이 결정요인임을 볼 때(금재호 · 김승택, 2001), 빈곤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시장요인이나 개인의 취업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와 생애주기를 주요변수로 하여 노동이동 횟수 결정요인과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노동이동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 하 KLIPS)의 원자료이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

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1차 조사(2008년)까지 완료되었다.

KLIPS 자료는 가구용 자료(이하 H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이하 P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 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성은 KLIPS 8-10차 원자료에서 추출된 표본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 원자료에서 생애주기 변수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구원 개인을 단위로 정보가 정렬될 수 있도록 H,P 자료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구 자료에 있는 가구정보를 개인단위 형태로 전환하였는데, 예를 들어 개인의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은 가구자료에서 제공하지만 개인의 혼인상태나 취업관련 자료는 개인자료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두 정보를 개인 단위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자료 결합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때 결합된 자료를 A라고 하자).

둘째, A자료에서 가족생활주기 변수를 얻기 위하여 자녀유무, 자녀와 가구주 연령,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상대빈곤여부를 중심으로 가구주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표본을 추출하였다.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생애주기에서의 노동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생활주기를 7단계로 구분한 다음 각 단계의 표본을 추출하여 B라는 가족생활주기 자료를 구성하였다.

셋째, A자료와 B자료를 결합하여 20세 이상의 가구원 중에서 취업자를 비롯하여 실업자, 미취업자 중에서 비경활상태이지만 근로의사가 있는 가구원을 근로가능자로 추출하여 분석 파일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력 자료를 가지고 노동이동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 상태로 제한하여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3년간의 노동이동여부와 노동이동 횟수를 분석할 수 있는 최종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one-way ANOVA), t-검정 등을 통해 단일 변수별 노동이동 횟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빈곤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빈곤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젠더·생애주기와 노동이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빈곤여부에 대한 내재설계(Nested Design)를 실시하였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노동이동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질연관성 검증(homogeneous association test)을 하였으며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r Model: GLM)인 포아송중다회귀분석(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sup>5)</sup>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lambda_i) = \alpha + \beta_1 \text{빈곤여부} + \beta_2 \text{젠더} + \beta_3 \text{생애주기} + \beta_4 \text{학력} + \beta_5 \text{종사상지위} + \beta_6 \text{직업훈련유무}$$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가. 종속변수 : 노동이동 횟수

노동이동의 정의는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상태를 의미하며, 노동이동 횟수는 3년간 해직 횟수와 취직횟수를 합산한 것이다.

####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빈곤여부, 젠더,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 지위, 직업훈련 유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빈곤여부

##### 가) 빈곤선

본 연구에서의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선으로서 중위가구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가구소득은 기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값이다. 그 결과 8차

5) 종속변수가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count data)로서 정규분포가 아닌 포아송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확률변수인 노동이동 횟수는 연속적이지만 이산적이며 전체 시행수 N을 고정시킬 수 없어서 일반선형모형에 의하여 노동이동 횟수의 비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아송분포에 기초한 중다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박광배, 2006).

년도 중위소득 금액은 연 13,595,300원이었으며, 60% 금액은 8,157,000원, 월평균 소득은 679,750원으로 계산되었다. 분석대상가구의 빈곤여부는 기준연도인 8차년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초기의 빈곤상태가 2년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sup>6)</sup>.

#### 나) 근로상태와 기준 연령

근로상태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노대명·최승아(2004)의 연구에서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가구원 중 연령과 근로능력유무 등을 기준으로 근로능력가능자를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함으로써 잠재적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여성 비경활 인구 등을 포함하였다. 지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정규직 근로빈곤층,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비임금 근로빈곤층, 실업근로빈곤층, 비경활 근로층으로 확대하면서 평소활동과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전업 학생, 가사 혹은 육아중인 경우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는 구직 의사가 있으면서 구직활동이 불규칙한 비경활 여성이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연령 기준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1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으나 근로개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없는 다수의 미혼 계층이 포함될 수 있어서 과대 추정으로 인한 분석의 오류를 낳을 수 있으며, 노인 기준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시기는 60세 이상이므로 빈곤한 생계형 고령 근로자가 과소 추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포함하여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가능 개인으로 정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제외된 근로불가능자는 20세 이상의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학업, 육아, 가사일, 퇴직, 나이가 많아서, 건강문제, 당분간 쉬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자로 정의하였다. 단, 육아나 가사일 때문에 미취업중이지만 알맞은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근로가능자로 분류하였다.

#### 다) 근로빈곤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포함하여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

6) 8차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9차 년도와 10차 년도에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본 연구는 가진다.

## 라) 근로빈곤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포함하여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 2) 젠더

젠더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된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 3) 생애주기

생애주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단계를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가족생활주기는 일반적으로 결혼지속 연수, 결혼상태, 자녀의 유무와 연령, 가구주 연령, 만자녀의 연령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인 가구·한부모 가구, 이혼 및 복합가구(stepfamily) 등과 같은 비전통적 가구형태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Paul C. Glick, 1989; June Axinn & Herman Levin, 2001) 생애주기를 통한 노동이동을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상태, 자녀유무, 연령, 혼인상태, 자녀의 동거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족생활주기를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1단계 : 미혼가구주 가구와 59세 미만의 동거자녀가 없는 기혼 가구주 가구

2단계 : 동거자녀 모두가 6세 이하인 가구

3단계 : 동거자녀의 최대 나이가 7~15세 미만인 가구<sup>7)</sup>

4단계 : 동거자녀 모두가 15세 이상의 비경활인 가구

5단계 : 동거자녀 중 1인 이상이 15세 이상의 경활인 가구

6단계 : 동거자녀 중 1인 이상이 결혼한 가구

7단계 : 60세 이상의 기혼 가구주 이면서 동거 자녀가 없는 가구

이러한 생애주기 구분은 기준연도인 8차년도 가구 상태를 기준으로 가구별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이 상태가 분석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sup>8)</sup>

7) 2, 3단계를 구분한 이유는 6세 이하의 자녀와 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특성을 명료화하기 위함이며, 3, 4단계를 구분하게 된 이유는 생산가능연령과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고려한 것이다.

8) 본 연구는 3개년의 자료, 2년간이란 짧은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가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서 빈곤여부 판정과 동일하게 분석기간 내 생애주기 상태가 변화하는 소수의 사례는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4) 학력

학력은 무학, 중졸이하, 고졸이하, 초대졸 이하, 대졸이상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5)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는 분석시점인 8차년도 지위로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구직자로 범주화 하였다. 구직자는 미취업자 중 조사 당시 1개월 이내 구직경험이 있거나, 구직조건이 맞으면 즉시 취업할 수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말한다.

6) 직업훈련 유무

분석기간인 8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3년간의 직업훈련 경험 유무에 대하여 범주화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리한 것은 다음 <표 1>이다.

표 1. 종속·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정리
종속변수	노동이동 횟수	3년간 해직횟수와 취업횟수 합산
독립변수	빈곤여부	빈곤=1, 비빈곤=2
	젠더	남성=1, 여성=2
	생애주기	1단계=1 ~ 7단계=7
	학력	무학=1, 중졸이하=2, 고졸이하=3, 초대졸 이하=4, 대졸이상=5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임시/일용직=2, 자영업=3, 무급가족종사자=4, 구직자=5
	직업훈련경험 유무	있다=1, 없다=2

## IV. 연구결과

### 1. 기술적 분석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별 노동이동 횟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대상 총 6,853명 중 3년간 노동이동을 한 경우는 3,097명으로 44.8%가 이동을 하였으며 노동이동 평균 횟수는 .82회(SD=1.12)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빈곤여부, 성별,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 지위, 직업훈련 유무에 따라 단일

변수별 노동이동률을 계산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노동이동 평균횟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빈곤여부에 따른 노동이동률은 근로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이동 평균 횟수에 있어서도 근로빈곤층이 1.08회로 근로비빈곤층 .76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간 노동이동이 빈번하다는 것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비취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은 취업촉진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이병희 · 반정호, 2009)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준다.

성별에 따른 이동률은 여성이 50.9%로 절반 정도가 노동이동을 경험하였으며 노동이동 평균 횟수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1.11회, 1.13회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초대졸(53.3%), 고졸(45.9%), 대졸이상(44.2%) 순으로 학력이 높은 경우에 노동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초대졸이 1.1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은 .78회로 다른 학력에 비해 노동이동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노동이동률은 미혼의 경우 65.3%가 1회 이상의 노동이동을 하였으며,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미혼이 1.27회, 배우자가 없는 기혼은 .84회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 .74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노동이동률과 노동이동 횟수를 보게 되면 20대의 68.9%가 노동이동을 경험하고 평균 1.34회의 노동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노동이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의 고실업의 원인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 노동이동률이나 노동이동 횟수를 보게 되면 근로활동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애주기별 노동이동률을 보면 1단계(미혼 혹은 자녀가 없는 단계) 53.4%, 5단계(자녀 중 한명 이상이 취업한 단계) 52.7%, 2단계(자녀 모두가 6세 미만) 45.3% 순으로 나타났는데 각 단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혼인 경우에 높은 이동률을 보였는데 가구 특성상 1단계와 5단계는 각각 미혼 가구주와 미혼 자녀가 있다 보니 이동률 또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노동이동이 생애주기 전반을 걸쳐 모든 단계에서 절반 가까이 경험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의 가구원도 34%가 노동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노동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 진입 후에도 취업 · 비취업의 상태 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뿐만 아니라 비취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완전고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동정책에 생애주기 관점의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노동이동률 및 노동이동 평균횟수 비교

구분		전체(A)	이동빈도(B)	이동률(C) <sup>1)</sup>	평균	표준편차	F/t
전 체		6853	3097	44.8	.82	1.12	
빈곤여부	비빈곤	5634	2375	42.2	.76	1.10	-8.546***
	빈곤	1219	722	59.2	1.08	1.18	
성별	남성	4062	1675	41.2	1.11	.02	-5.538***
	여성	2791	1422	50.9	1.13	.02	
학력	무학	135	48	35.6	.51	.78	13.163***
	중졸	1544	636	41.2	.72	1.05	
	고졸	2583	1185	45.9	.85	1.16	
	초대졸	910	485	53.3	1.00	1.18	
	대졸이상	743	1681	44.2	.79	1.09	
혼인상태	미혼	944	616	65.3	1.27	1.26	93.163***
	기혼(유배우자)	5185	2135	41.2	.74	1.07	
	기혼(무배우자)	724	346	47.8	.84	1.11	
연령	만 20~29세	893	615	68.9	1.34	1.26	55.698***
	만 30~39세	1688	771	45.7	.88	1.19	
	만 40~49세	1824	724	39.7	.74	1.10	
	만 50~59세	1408	550	39.1	.65	.98	
	만 60~69세	738	326	44.2	.66	.89	
	만 70세 이상	302	111	36.8	.58	.93	
생애주기	1단계	791	422	53.4	1.03	1.23	20.816***
	2단계	688	312	45.3	.89	1.22	
	3단계	1131	463	40.9	.79	1.13	
	4단계	1775	699	39.4	.68	1.02	
	5단계	1794	945	52.7	.96	1.16	
	6단계	247	111	44.9	.70	.92	
	7단계	427	145	34.0	.50	.82	
종사상지위	상용직	2595	1092	42.1	.80	1.16	81.283***
	임시/일용직	767	454	59.2	1.21	1.31	
	자영업	1526	472	30.9	.52	.92	
	무급가족종사자	406	115	28.3	.46	.85	
	구직자	1559	964	61.8	1.05	1.09	
직업훈련경험	있음	1339	486	36.3	.72	1.16	-5.12***
	없음	4616	2241	48.5	.90	1.16	

주: 1) 이동률(C) = 이동빈도(B) / 전체(A) × 100

\*\*\*p < .001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동이동률을 보게 되면 비경활 인구인 구직자가 61.8%로 임시·일용직 59.2% 보다 높게 나타나 구직자들도 종사자들 못지않게 노동이동이 빈번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의 60% 정도가 노동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경활 인구로 분류된 것을 보면 4주 이상의 실업을 경유하는 노동이동을 경험하여 노동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경활인구로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이동 평균 횟수에 있어서는 임시·일용직이 1.21회로 구직자 1.05회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3년간 직업훈련 경험 유무에 따른 노동이동률과 평균 노동이동횟수를 보면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의 36.3%, 없는 경우의 48.5%가 노동이동을 경험하였으며, 평균 노동이동횟수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72회, 없는 경우가 .90회로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노동이동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저숙련자 및 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 대한 직업훈련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들은 낮은 숙련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숙련자들의 인적자원 특성,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모듈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각 특성별 노동이동 평균횟수의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1$ ).

## 2.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본 장에서는 젠더·생애주기와 노동이동과의 관계에서 빈곤여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빈곤여부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빈곤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젠더와 생애주기가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빈곤여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빈곤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젠더·생애주기와 노동이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재설계(Nested Design)를 실시하였다.

빈곤여부와 노동이동과의 관계는 빈곤여부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 낮은 소득수준상태에 있어 경제적 변동에 매우 취약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일상적 기초생활에서 절대빈곤층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이현주 외, 2005)에서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은 빈곤여부와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되어야 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와 생애주기가 빈곤여부와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빈곤여부와 젠더와의 상호작용은 검정 통계량인 F값이 3.81로 유의확률은 .051로 나타나 빈곤여부와 젠

더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이동 횟수에 대한 빈곤여부와 생애주기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F값이 3.581, 유의확률 .002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빈곤여부와 생애주기와의 상호작용 또한 존재하였다.

표 3. 젠더 ·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제 III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Sig.
수정모형	136.883	3	45.63	36.94	.000
빈곤여부	88.603	1	88.60	18.84	.000
젠더	9.223	1	9.22	1.96	.006
빈곤여부 * 젠더	4.704	1	4.70	3.81	.051
오차	8459.634	6849	1.24		
합계	13207.000	6853			
R제곱 = .016(수정된 R제곱 = .015)					
수정모형	3321.158	13	25.551	21.14	.000
빈곤여부	113.176	1	113.176	33.09	.000
생애주기	178.550	6	29.758	6.88	.000
빈곤여부 * 생애주기	25.966	6	4.328	3.581	.002
오차	8264.359	6839	1.208		
합계	13207.000	6853			
R제곱 = .039(수정된 R제곱 = .037)					

이를 [그림 2]와 [그림 3]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은 빈곤여부와 젠더 및 생애주기가 각각 다른 기울기를 가지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과 비빈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노동이동 평균횟수를 잇는 선을 그어 나타낸 것이다. 기울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젠더와 생애주기 모두 빈곤여부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보게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이동 횟수가 많으며 근로빈곤층 남성과 여성은 근로비빈곤층 남성과 여성에 비해 강한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생애주기 단계별로 노동이동 횟수와의 차이가 존재하며 근로빈곤층 2단계가 노동이동 횟수와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빈곤여부는 젠더와 생애주기와 상호작용하여 노동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빈곤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젠더 · 생애주기의 노동이동 횟수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빈곤여부에 대한 내재설계(Nested Design)를 실시하였다. 근로비빈곤 집단내에서 젠더 · 생애주기에 의한 노동이동 횟수는 차이가 있는지, 근로빈곤집단 내에서도 젠더 · 생애주

그림 2. 젠더와 빈곤여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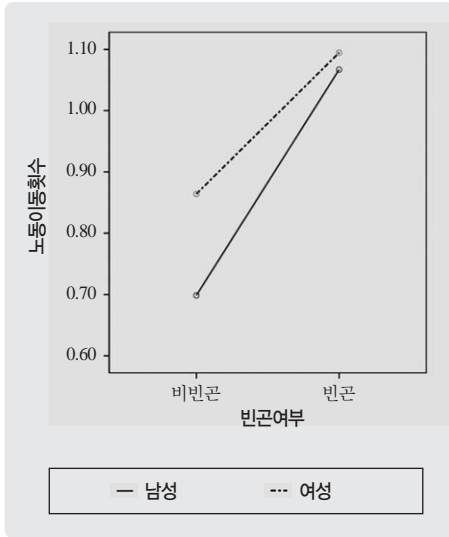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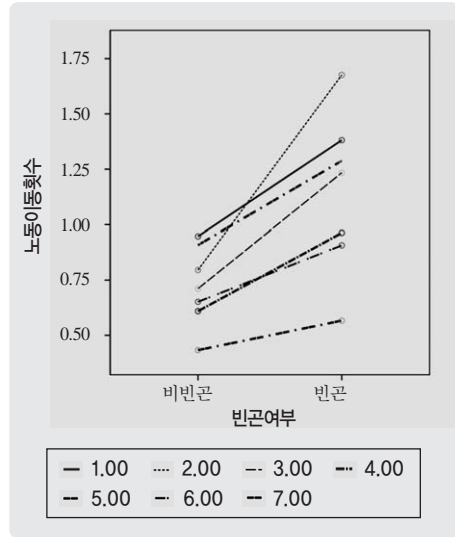


그림 3. 생애주기와 빈곤여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



기에 의한 노동이동 횟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여 상호작용효과와는 다른 방법으로 빈곤여부가 젠더·생애주기와 노동이동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젠더별 빈곤여부와의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와 같다. 남성과 여성 근로빈곤층 모두가 근로빈곤층보다 노동이동 평균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노동이동 횟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 빈곤여부별 젠더별 노동이동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근로비빈곤		근로빈곤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평균	.70	.86	1.07	1.09	.82
표준편차	1.08	1.12	1.19	1.18	1.12
N	3404	2230	658	561	6853

빈곤여부별 젠더간의 노동이동 평균횟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내재설계) 결과는 <표 5>와 같다. 근로비빈곤 집단에서 젠더 간의 노동이동 평균횟수 차이는 F값 29.89,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하였으나 근로빈곤 집단에서는 젠더 간의 노동이동 평균횟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빈곤여부별 젠더 간의 노동이동 차이

변인	제공합	df	평균제공	F	Sig.
빈곤여부	88.60	1	88.60	71.73	.000
젠더 in 근로비빈곤	36.92	1	36.92	29.89	.000
젠더 in 근로빈곤	.23	1	.23	.19	.666
집단 내	8459.63	6849	1.24		
전체	8596.52	6852	1.25		

빈곤여부별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의 노동이동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6>과 같다. 근로빈곤층은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서 노동이동 평균횟수가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단계에서 근로비빈곤층 노동이동평균 횟수는 .80회 근로빈곤층은 1.68회로 거의 2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빈곤여부별 생애주기별 노동이동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근로비빈곤		근로빈곤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애주기	1단계	.95	1.20	1.38	1.32	791
	2단계	.80	1.16	1.68	1.42	688
	3단계	.71	1.10	1.23	1.24	1131
	4단계	.61	.98	.96	1.14	1775
	5단계	.91	1.16	1.29	1.14	1794
	6단계	.65	.93	.91	.84	247
	7단계	.43	.74	.57	.89	427
전체		평균: .82, 표준편차: 1.12				6853

빈곤여부 별 생애주기 단계간의 노동이동 평균 횟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내재설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근로비빈곤 집단에서는 생애주기 단계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F값은 16.13, 유의확률은 .000이었으며, 근로빈곤 집단에서도 생애주기 단계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F값이 15.92, 유의확률 .000으로 빈곤여부별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이동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젠더 · 생애주기와 노동이동 횟수와의 관계는 빈곤여부가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빈곤여부별 생애주기 간의 노동이동 차이

변인	제공합	df	평균제공	F	Sig.
빈곤여부	113.18	1	113.18	93.66	.000
생애주기 in 근로빈곤	116.98	6	19.50	16.13	.000
생애주기 in 근로빈곤	115.44	6	19.24	15.92	.000
집단내	8264.36	6839	1.21		
전체	8596.52	6852	1.25		

노동이동에 대한 빈곤여부와 젠더, 빈곤여부와 생애주기와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은 젠더에 의한 차이는 없으나 생애주기에 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은 근로빈곤층보다 가구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녀 모두가 6세 미만이거나 비경활 상태여서 부양부담이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때 노동이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과 부양 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사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은 노동시장 진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제도나 육아를 가능케 하는 단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등의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가사활동과 취업간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경력단절과 단시간 노동이 실업보험이나 노령연금 등의 사회보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 근로빈곤층과 근로빈곤층 노동이동의 차이

빈곤여부가 젠더와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파악됨에 따라 근로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차이를 젠더와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 승산비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 가. 빈곤여부별 젠더에 따른 노동이동 차이

젠더에 따른 노동이동 차이 분석은 젠더별 근로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여부에 대한 <표 8>의 교차표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chi^2$ )검정, 위험도 추정값(odds ratio), 동질성 검정(Breslow-Day Test)을 실시하였다. 즉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빈곤여부

표 8. 빈곤여부별 젠더에 따른 노동이동 차이

성별	노동이동 상태	근로빈곤	근로빈곤	x <sup>2</sup>	승산비	Breslow-Day Test	
						x <sup>2</sup>	Sig.
남성	유지	2113(62.1)	274(41.6)	95.00***	2.294	7.70	.006**
	변화	1291(37.9)	384(58.4)				
	전체	3404(100)	658(100)				
여성	유지	1146(51.4)	223(39.8)	24.30***	1.602		
	변화	1084(48.6)	338(60.2)				
	전체	2230(100)	561(100)				
전체		5634	1219				

\*\*p<.01, \*\*\*p<.001

별로 젠더에 따른 노동이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위험도 추정값(승산비, odds ratio)으로 근로빈곤층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겪을 노동이동에 대한 확률의 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통 승산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통해 이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 지를 검정하였다.

빈곤여부별로 젠더에 따른 노동이동의 차이를 보면 근로빈곤층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근로비빈곤층보다 노동이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빈곤층 남성과 여성은 각각 58.4%, 60.2%가 노동이동을 경험하여 여성의 노동이동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근로비빈곤층의 남성과 여성 각각 62.1%, 51.4%가 취업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과의 노동이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또한 빈곤여부별로 젠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확률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 분석을 보면 남성 2.294, 여성 1.602로 나타나 남성근로빈곤층은 남성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노동이동 확률이 2.3배, 여성근로빈곤층은 여성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노동이동 확률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따라서 빈곤여부별 젠더에 따른 노동이동 여부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나. 빈곤여부별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 차이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노동이동 여부에 대한 차이 분석은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젠더와 마찬가지로 생애주기 각 단계별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노동이동여부에 대한 교차표를 구성하여 카이제곱(x<sup>2</sup>)검정, 위험도 추정값(승산비, odds ratio), 동질성 검정(Breslow-Day Test)을 실시하였다. 즉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빈곤여부별로 각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이동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위험도 추정값(승산비)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겪을 노동이동 확률의 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통 승산비에 대한 동질성 검정으로 이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 지를 검정하였다.

빈곤여부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의 차이를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은 5단계에서 취업상태가 변화한 비율이 71.7%로 가장 높았으며, 1단계 68.9%, 6단계 65.1% 순이었으며 모든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노동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근로비빈곤층은 1단계 50.0%, 5단계 49.9%, 2단계 41.8% 순으로 노동이동 비율이 나타나 절반 이상이 취업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1$ ). 그러나 7단계에서의 빈곤여부별 노동이동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빈곤여부별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 차이

생애 주기	노동이동 상태	근로비빈곤	근로빈곤	$\chi^2$	승산비	Breslow-Day Test	
						$\chi^2$	Sig.
1단계	유지	322(50.0)	47(32.0)	15.63***	2.128	18.227	.006**
	변화	322(50.0)	100(68.0)				
	전체	644(100)	147(100)				
2단계	유지	359(58.2)	17(23.9)	30.12***	4.420		
	변화	258(41.8)	54(76.1)				
	전체	617(100)	71(100)				
3단계	유지	609(63.2)	59(35.3)	45.65***	3.140		
	변화	355(36.8)	108(64.7)				
	전체	964(100)	167(100)				
4단계	유지	919(64.4)	157(45.1)	43.59***	2.201		
	변화	508(35.6)	191(54.9)				
	전체	1427(100)	348(100)				
5단계	유지	785(50.1)	64(28.3)	37.47***	2.538		
	변화	783(49.9)	162(71.7)				
	전체	1568(100)	226(100)				
6단계	유지	121(59.3)	15(34.9)	8.57**	2.721		
	변화	83(40.7)	28(65.1)				
	전체	204(100)	43(100)				
7단계	유지	144(68.6)	138(63.6)	1.17	1.249		
	변화	66(31.4)	79(36.4)				
	전체	210(100)	217(100)				

p\*\* < .01, \*\*\*p < .001

또한 빈곤여부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확률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 분석을 보면 근로빈곤층이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근로빈곤층보다 노동이동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승산비는 2단계에 있는 근로빈곤층이 4.4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3단계에서 3.14배, 6단계에서 2.72배 순으로 나타났다( $p < .01$ ). 따라서 빈곤여부별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 여부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4. 젠더 · 생애주기별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빈도

<표 10>에서 근로빈곤층의 젠더와 생애주기별 노동이동 횟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이동 빈도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생애주기별 빈도분석에서는 단계별로 빈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60세 이상의 자녀가 없는 가구로 구성된 7단계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217명(17.8%) 중에서 79명(36.40%)이 1회 이상의 노동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세대의 빈곤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이 시기의 노동이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면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5단

표 10. 젠더 · 생애주기별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빈도 (단위: 명,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 체
남성 생애주기	1단계	25(34.7)	20(27.8)	11(15.3)	11(15.3)	2(2.8)	3(4.2)	72(100)
	2단계	15(28.3)	15(28.3)	8(15.1)	8(15.1)	4(7.5)	3(5.7)	53(100)
	3단계	35(36.5)	27(28.1)	21(21.9)	12(12.5)	1(1.0)	0(0.0)	96(100)
	4단계	94(49.0)	56(29.2)	23(12.0)	14(7.3)	3(1.6)	2(1.0)	192(100)
	5단계	33(26.6)	45(36.3)	23(18.5)	20(16.1)	1(0.8)	2(1.6)	124(100)
	6단계	9(42.9)	9(42.9)	2(9.5)	1(4.8)	0(0.0)	0(0.0)	21(100)
	7단계	63(63.0)	18(18.0)	16(16.0)	1(1.0)	1(1.0)	1(1.0)	100(100)
전 체		274(41.6)	190(28.9)	104(15.8)	67(10.2)	12(1.8)	11(1.7)	658(100)
여성 생애주기	1단계	22(29.3)	23(30.7)	13(17.3)	13(17.3)	3(4.0)	1(1.3)	75(100)
	2단계	2(11.1)	6(33.3)	4(22.2)	5(27.8)	1(5.6)	0(0.0)	18(100)
	3단계	24(33.8)	20(28.2)	15(21.1)	5(7.0)	3(4.2)	4(5.6)	71(100)
	4단계	63(40.4)	46(29.5)	26(16.7)	15(14.7)	1(1.0)	2(1.3)	156(100)
	5단계	31(30.4)	36(35.3)	18(17.6)	15(14.7)	1(1.0)	1(1.0)	102(100)
	6단계	6(27.3)	10(45.5)	5(22.7)	1(4.5)	0(0.0)	0(0.0)	22(100)
	7단계	75(64.1)	27(23.1)	11(9.4)	4(3.4)	0(0.0)	0(0.0)	117(100)
전 체		223(39.8)	168(29.9)	92(16.4)	58(10.3)	12(2.1)	8(1.4)	561(100)

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유지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3단계, 4단계, 7단계에서 유지가 이동한 경우보다 많았다.

## 5. 노동이동 결정요인에 대한 포아송중다회귀 분석 결과

빈곤여부, 젠더,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 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가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의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에 대한 모형 효과검정을 보게 되면 빈곤여부, 젠더,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 지위, 직업훈련유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변인들은 노동이동 횟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모형 효과 검정

	Wald	df	Sig.
상수	82.729	1	.000***
빈곤여부	126.357	1	.000***
젠더	52.602	1	.000***
생애주기	128.899	6	.000***
학력	59.232	4	.000***
종사상 지위	321.646	4	.000***
직업훈련유무	45.995	1	.000***

\*\*\*p<.001

<표 12>에서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포아송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빈곤한 경우가 비빈곤 보다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 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이동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은 노동이동 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생애주기에서는 각 단계 모두가 7단계에 비해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에 비해 무학과 중졸이하의 경우 노동이동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 < .001$ ), 초대졸은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고졸이하도 노동이동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노동이동 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상용직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는 노동이동 횟수와 부의 관계를 가



지며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2008)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욱 높아 저소득 취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저소득 취업자는 저소득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저임금·저소득 취업자가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 종사자가 노동이동 횟수와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으로의 고착화 현상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변수들이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모형 적합도 검정에서는 각 변수들이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표 12. 노동이동 횟수에 대한 포아송 증다회귀 분석 결과

	B	S.E	Wald Chi-Square	df	Sig.
상수	-.303	.09	11.78	1	.001**
빈곤여부(기준: 비빈곤)	.393	.04	126.36	1	.000***
젠더(기준: 여성)	-.210	.03	52.60	1	.000***
생애주기 1단계(기준: 7)	.704	.08	69.37	1	.000***
2단계	.507	.09	32.30	1	.000***
3단계	.423	.08	25.13	1	.000***
4단계	.301	.08	13.89	1	.002**
5단계	.583	.08	52.50	1	.000***
6단계	.323	.11	8.34	1	.004**
학력 무학(기준: 대졸이상)	-.560	.13	17.36	1	.000***
중졸이하	-.194	.05	17.00	1	.000***
고졸이하	.038	.04	1.00	1	.318
초대졸 이하	.112	.05	5.84	1	.016*
종사상지위 상용직(기준: 구직자)	-.177	.04	23.56	1	.000***
임시/일용직	.165	.04	13.93	1	.013*
자영업	-.590	.05	157.14	1	.000***
무급가족종사자	-.793	.08	92.39	1	.000***
직업훈련유무(기준: 없음)	-.253	.04	46.00	1	.000***
Likelihood Ratio $\chi^2$ (df) sig	884.393(17)***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빈곤여부, 젠더,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 지위, 직업훈련 경험 유무 등은 노동이동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변인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동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빈곤여부는 젠더 및 생애주기와 결합하여 노동이동에 상호작용효과를 일으키며,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노동이동이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노동이동 분석과 정책 마련에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향후 근로빈곤층 노동이동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여성의 노동이동 평균 횟수가 남성보다 높으며 여성의 절반 이상이 노동이동을 경험한다는 것은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분석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은 생계부양자 중심으로 성별화되어 있어서 남성과 비슷한 노동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과 비취업 상태를 빈번히 오고 가며 비자발적인 노동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므로 가사활동과 취업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사활동이나 육아로 인한 단절과 단시간 노동이 실업보험이나 노령연금 등의 사회보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이동은 노동시장에 의한 개인별 노동활동의 한 행태로 볼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이동 유발요인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생애주기효과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과 같은 노동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 내부의 이질성은 생애주기 효과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이 노동활동을 통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다른 가구원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노동활동이 가구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활동이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이동이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비빈곤층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향후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나 정책개발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가구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애주기와 젠더를 비롯하여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 상태나 노동시장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이동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노동이동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행노동시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고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전통적 노동시장의 개념으로 완전고용을 고용의 최고 가치로 두며, 노동생애의 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행태로 보았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이동을 분석함에 따라 노동이 전 생애를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전 생애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비경황상태에 있으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의 노동이동 또한 근로활동 중인 사람 못지않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고용정책은 ILO 기준과 OECD 노동통계에서 사용되는 기준에 의해 취업자를 비롯하여 현재 일이 없고 구직기간이 4주 이내이면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구직기간이 4주 이상이 되면 구직활동 및 노동이동을 할지라도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가능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집중 시기에 놓여 있는 실업자 중심의 고용정책은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이 실업을 경유하거나 전 생애에 걸쳐 취업과 비취업의 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볼 때 나쁜 일자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시장과 꾸준히 연계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노동유연안정성과 같은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고용정책은 일자리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상향이동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확률은 근로비빈곤층보다 더 높으며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노동이동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을 위한 고용정책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이동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과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정책, 근로활동의 위협요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업훈련여부에 따른 노동이동 차이가 확인되고 직업훈련으로 인한 취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도 노동이동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취업의사 및 근로능력에 따른 취업알선 및 인적자본 수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 대한 직업훈련은 이들 개인의 소득능력이 개발, 유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능후는 미국 버클리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보장정책이며 현재 빈곤문제 및 노동시장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npark@kyonggi.ac.kr).

배미원은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근로빈곤, 고용지원 정책, 성별영향평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빈곤문제, 노동시장, 성인지 정책이다(E-mail: aldnjs62@hanmail.net).

## 참고문헌

---

- 곽선화(2007). 여성의 경력장애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 pp.1-23.
- 금재호(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pp.41-73.
- 금재호, 김승택(2001). 빈곤이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7(2), pp.511-539.
- 금재호, 조준모(2002). 실업자의 재취업과 직장상실비용. *경제학연구*, 50(1), pp.209-241.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pp.82-112.
- 김가을(2007). 비취업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분석. 박사학위 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동헌(2009). TLM과 고용서비스 개혁: 유럽의 경험. TLM과 고용서비스 포럼, pp.1-41.
- 김미곤, 김태완(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20(3), pp.173-200.
- 김안나(2007).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29, pp.145-168.
- 김영란(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 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41-69.
- 김유배(2006). *노동경제학*. 서울: 박영사.
- 김종숙, 박수미(2003). *한국여성의 노동이동*.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 이선행, 윤병욱(2006). *여성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인, 박민혜(2007).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실증 연구. *상경연구*, 27(2), pp.77-104.
- 김태완(2000). 조세 및 소득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45, pp.43-54.
- 김혜원, 최민식(2008). 직장이동의 유형에 따른 단기임금변화. *노동경제논집*, 31(1), pp.29-57.
- 김현미, 송승영(2003). 성별화된 시공간적 동개념과 한국여성노동의 유연화. *한국여성학*, 19(2), pp.63-94.
- 노길상(2008).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2008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 pp.9-34.
- 노대명, 최승아(2004). *한국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 실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최병두, 조명래, 류정순(2006).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6), pp.671-692.
- 노대명(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광배(2006). 범주변인분석. 서울: 학지사.
- 박경숙, 김영혜(2005). 생애를 통해서 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의미. 경제와 사회, pp.133-160.
- 박능후, 여유진, 김계연, 임완섭, 송연경, 박소연(2003). 탈빈곤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동건(2001). 이직모형 비교연구: Mobley의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4(2), pp.1-22.
- 박석돈(2007). 근로자의 이직모형에 대한 고찰. 재활과학연구, 25(1), pp.29-43.
- 박수미(2002). 한국 여성들의 첫 직업진입 ·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2(2), pp.145-174.
- 박수미, 정진주, 박선영(2005).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 참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진희(2007). 여성직장이동의 특징. 여성경제연구소, 4(2), pp.25-44.
- 반정호, 김경희(2008).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특성과 소비패턴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4(3), pp.1-28.
- 배은경(2004). 사회분석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연구: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연구, 4(1), pp.55-100.
- 성문주(2009).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학력효과에 대한 젠더 비교연구. 여성학논집, 26(1), pp.109-134.
-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pp.23-50.
- 여유진, 김미곤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지영(2003).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05).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성호(2005). 한국노동민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pp.149-176.
- 이기효(1994). 이직의도 인과모형의 실증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영학과, 성균관대학교, 서울.
- 이병희(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노동경제논집, 28(1), pp.1-28.
- \_\_\_\_\_(2009). 일자리 위기와 빈곤. 보건복지포럼, 150, pp.33-38.
- 이병희, 반정호(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동향과 전망, 75, pp.215-244.
- 이상은(2004). 근로능력 빈곤가구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 사회보장연구, 20(3), pp.27-56.
- 이현주, 김미곤 외(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원봉, 정수남(2005).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과 빈곤화에 관한 연구. 도시와 빈곤, 77, pp.53-74.
- 정원호(2004). 유럽의 유연안정성 전략연구: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진호, 황덕순, 금재호, 이병희, 박찬입(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희정(2005). 유럽노동시장의 새로운 대책;이행노동시장(I-IV). 국제노동브리프, 3(2)~(7),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조용수, 김기승(2007).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실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보장연구, 23(3), pp.101-124.
- 지은정(2007). 근로빈곤층의 빈고탈출결정요인 연구: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pp.147-174.
- 최옥금(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5(1), pp 1-42.
- 최옥금(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서울.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Smith. (2003). *Modern Labor Economics 8th*. 한홍순 · 김중렬 역(2007). 노동경제학:이론과 공공정책. 서울: 교보문고.
- 홍경준, 최옥금(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 추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Bluedom, A. C. (1987). A Taxnomy of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 pp.647-651.
- Carter, Betty and Monica McGoldrick. (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2nd)*. Allyn and Bacon.
- Cotton, J.L., J.M Tuttle. (1986). Employee Turnover:A meta analysis and review with implication for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1), pp.55-70.
- Erik de Gier, Axel van den Berg. (2005). Making Transitions Pay!. *ASSR Workingf paper*, pp.31-118.
- Esping-Andersen, G. (2002). Toward the Good Society, Once Aga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Gazier, B., G. Schmid. (2002).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and introductory overview”.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U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pp.1-20.
- Gillian, Pascal, Lewis Jane. (2004). Emerging Gender Regimes and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a Wider Europe. *Jnl Soc. Pol*, 33(3).
- Gleicher, D, Lonniek, K. (2005). A Comprehensive Profile of the Working Poor. *LABOUR*, 19(3), pp.517-529.
- Glick, Paul C. (1989). The Family Life Cycle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 38.
- Joy, Clancy, Ummar Farreha. (2007). Appropriate gender-analysis tools for unpacking the gender-energy-poverty nexus. *Gender & Development*, 15(2).
- June, Axinn, Levin Herman. (1979). The family life cycle and economic security. *Social Work*, pp.540-546.
- Klaus, Schomann, Siarov Liuben. (2004). Managing Social Risks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Final Report of the 5th framework programme project*, pp.13-25.

- Marlene, Kim. (1998). The Working Poor:Lousy Jobs or Lazy Workers?. *Journal of Economic Issues*, 32(1), pp.65-78.
- Macy, B.A., P.H. Mirvis. (1983). Assessing Organization change, *In S. E. Seashore, E.E.Lawler, P.H.Mirvis & C. Camman(Eds.)*, New York: Wiley, pp.139-177.
- Muller, C.W. , J.L. Price. (1990). Psychological & sociological determinants of voluntary. *Journal of Behavioral Economics*, 19, pp.321-335.
- Price, J.L., C.W. Muller. (1981). Causal modes of turnover for nurs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 pp.543-565.
- Rexroat, Cynthia. (1985). Women's Expectations and Labor-market Experience in Early and Middle Family Life-cycle St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pp.131-142.
- Room, G. (1990).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Macmillan.
- Schmid, G. (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WZB Discussion Paper*, pp.145-189.
- \_\_\_\_\_. (2006). Transitional Labour Markets:Experiences from Europe and Germany, *Australian Bulletin of Labour*, 32(2), pp.119-144.
- Shiplier, David K. (2003). the Working Poo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pp.36-43.

#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Park, Neung Hoo**  
(Kyonggi University)

**Bae, Mi Won**  
(Kyonggi University)

---

This paper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8th (2005) to 10th (2007) yea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number of job turnover and taking job was used as indicator of labor mo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verty conditions,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life course, employment status, and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very singl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re are interactive effects on labor mobility between gender and poverty condition and between life course and poverty condi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poverty condition has strong influence on labor mobility. A 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on labor mobility. Many variables including gender, life course, education, employment position, job training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mobility. Specially gender and life course were strongly significant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determinants, which implies that gender and lif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

**Keywords :** Working Poor, Labor Mobility, Gender, Life Course, Poverty Conditions

2009년 제29권 2호

#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인쇄일 | 2009년 12월 15일

발행일 | 2009년 12월 31일

발행인 | 김용하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 02-380-8000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제작 | 예원기획

정가 | 5,000원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Anna Kim**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y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 Jiwon Kang** Korea's Policy on Single-parent Household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 Bae, Hwa-ok | Kim, Yu-Kyung**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 Jang, Yun-Jeong** The Impact of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on Care Workers' Burnout, Care Work and Care Environments in Japan's Special Nursing Homes
- Lee Pil-Do | Kim Mi-Hye** A Study of Standard Funeral Service Charge
- Ku, In-hoe | Shon, Byong-Don | Um, Ki-Wook | Jung, Jae-Hoon | Lee, Soo-You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Exa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Permanent Residents to Social Welfare Benefits
- Park, Neung Hoo | Bae, Mi Won**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 Yong-Gab Le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and Their Lesson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 Seng-Eun Choi**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and Deadweight Loss
- In Suk Cheong | Sangjik Lee** A Study on an Incentive System for Reduc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orea
- Kirang Kim | Mi Kyung Kim | Young-Jeon Shin** Household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